

더 많은 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.

1. 관련 기사

- 1.13.(화) 서울경제, 고보기금 4조 적자인데...“자발적 이직도 실업급여 주자”, 한국경제, 일자리 부족에 세금 줄줄 새는 실업급여 현장(사설) 등 관련

- 지난해 구직급여 지급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가 실업급여 적용 대상을 넓히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.
- 부정 및 반복 수급 문제가 심각한데도 정부가 실업급여 대상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.

2. 설명 내용

- 고용노동부는 '25년 11월부터 고용보험 기금 재정,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전반적인 개선방안에 대해 노동계·경영계·전문가 등과 함께 논의하고 있으며,
-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향후 안정적인 재정 기반 아래 더 많은 일하는 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임
- 특히, 생애 1회 자발적 이직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청년의 제도약을 지원하면서도 사회적 우려는 최소화하는 방안을 노사 및 전문가와 함께 마련해 나가겠음
- 또한, 실업급여 지출이 더욱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재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부정수급 예방과 단속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

담당 부서	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보험기획과	책임자	과 장	하창용 (044-202-7347)
		담당자	서기관	배혜영 (044-202-7352)
			사무관	조일한 (044-202-7373)
담당 부서	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지원실업급여과	책임자	과 장	이영기 (044-202-7368)
		담당자	서기관	조경선 (044-202-7374)